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익 115%↑
3분기 '최대실적'
L2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개성공단 열리면
무조건 간다”
L5



신통기획 ‘가리봉2구역’ 개발 속도 G밸리 직주근접 복합단지 탈바꿈

서울시, 일부 준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대폭 강화
정비사업기간 18.5년→12년 단축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가리봉2
구역 재개발 사업이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통
통합기획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리봉2구역
은 2023년 6월 신통통합기획 확정 이후,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으며
조합 설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했다.

이 지역은 2014년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뚜렷한 발전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던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노후 주거지 개선과
G밸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통
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용
적률 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9.6%
적용 등 사업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써 가리봉2구역은 ‘G밸리 직주근접 복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지만,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노후화와
슬럼화가 지속되며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열악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 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시

왔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을 통해 산
업·주거 균형을 이루는 직주근접형 복
합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조
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당점 제한, 대
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
됐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은 28일 오후 2
시 가리봉2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
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
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예상되는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정비사업이 혼
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
력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시민 주거 안정
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통통합기획 2.0’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혁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리봉2구역은
이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시는 공정축진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세밀하게 공정을 관리하고, 갈
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사업 과정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
심의 추진 방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2012~2020
년) 총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공급 절벽이 이어져 왔다”며 “가리봉2구
역을 비롯한 주요 정비사업을 흔들림 없
이 추진해 주택공급 정상화와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강화섬쌀 등 인천 농특산물 호주로 수출

강화군, 호주무역업체와 수출협약

인천광역시 강화섬쌀을 앞세워 호
주 시장 개척에 나선다. 시는 지난 27
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강화군, 인천테
크노파크(ITP), 호주 무역업체 AGS
와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인
천 농식품의 해외 진출 다변화를 본격
화한다.

이번 협약은 강화섬쌀을 비롯한 인
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시와 강화군, IT
P, AGS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30
일 강화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는 ‘강화섬쌀 호주 수출 상차 기념행
사’가 열린다. 첫 선적분은 약 2,200만
원 규모의 강화섬쌀 10톤으로, 호주 멜
버른 소재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될 예
정이다.

이와 함께 시드니의 상설매장에는
인천 지역 7개 농가기업체의 제품 11종
이 약 2,500만 원 규모로 수출돼 11월
중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북미 중심이던 수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가운데)이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지역 농특산물 호주 수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장을 오세아니아로 확장하며 농식품
수출의 지리적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2022년 캐나다 유통
업체 KFT와 협약을 체결해 강화섬쌀
150톤(3억6천만 원)과 농가공품 73품
목(9천4백만 원)을 수출하며 성과를 거
뒀다. 지난해에는 토론토 갤러리아 슈
퍼마켓 3개 지점에 상설 판매장을 열어
‘shop in shop’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번 호주 진출은 그에 이은 두 번째 해
외 신시장 개척 사례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킨텍스, 30일까지 국제도로교통박람회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가 28일부터
30일까지 제2전시장에서 한국도로협회
(회장 함진규)와 공동으로 ‘2025 국제도
로교통박람회(International Road &
Traffic Expo 2025, ROTREX 2025)’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도로·교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대표 박람회로 한국도
로공사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공공기
관 관계자와 독일과 일본, 대만 등 해외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3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국내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새롭게 마련한 실감형
체험공간 ‘EX존(EXperience ROTREX
X Zone)’이 눈길을 끈다.

이 공간은 ▲AI 영상인식 기반 하이패
스 및 C-ITS(차량-인프라 협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AI 영상인식존’ ▲야간
도로환경을 재현한 ‘나이트 드라이빙존’
▲보행자 안전기술과 스마트 횡단보도 시
스템을 선보이는 ‘보행자 안전존’으로 구
성돼 관람객에게 새로운 전시 경험을 제
공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혁신 연구성과 공유

‘수업을 나누다. 미래를 잇다’ 슬로건
오늘 ‘초등 수업 혁신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9
일 용산 피스앤펍크 컨벤션에서
‘2025 초등 수업 혁신 컨퍼런스’를 개
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업을 나누다. 미래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교사의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형 공교육
수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근식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은 올
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육의 수업
혁신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학생 중심의 공
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학교 단위 ‘서울

형 수업 혁신 모델’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자리다.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 ▲‘수업 혁신
연구학교’ 및 ‘질문하는 학교’ 성과
공유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자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총 2부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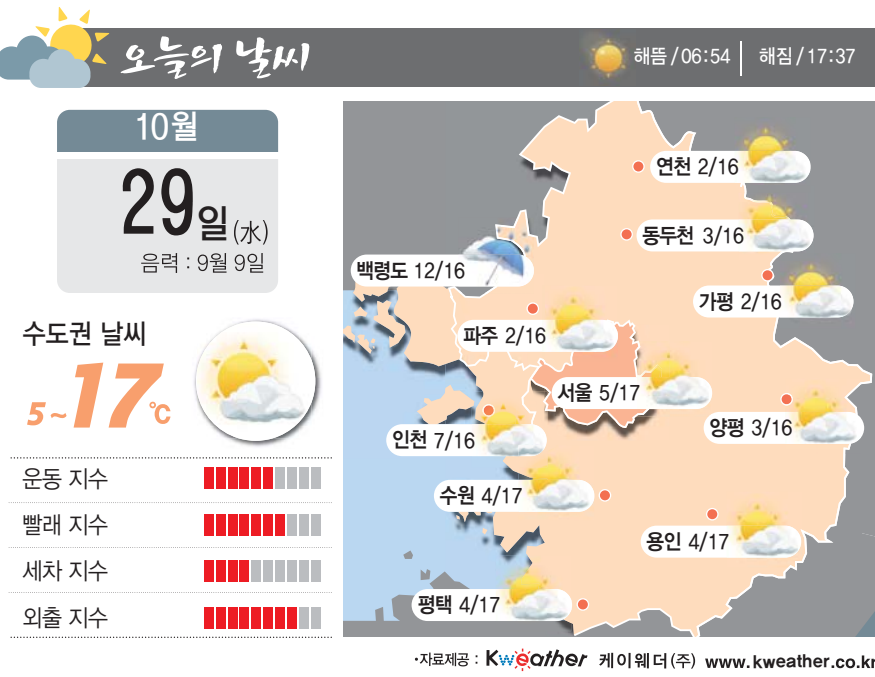
1부에서는 김갑진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물리학과 교수가 ‘미래를 여
는 교실, 질문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교육부의 ‘찾아가는 질문 콘서트’ 일환
으로 운영돼, 교육부의 수업 혁신 방
향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2부는 ‘서울형 수업 혁신의 현재’를 직
접 체험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5

개 수업 혁신 연구학교의 교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형 수업 전시관’으로 운영
된다. 참석자들은 여러 학교를 차례로 방
문하듯 서울 초등 수업의 변화를 직접 보
고·듣고·느끼는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서울위례초의 ‘개
념으로 뿌리 내리고 탐구로 확장한 성
장의 여정’ ▲서울공진초의 ‘교사는 배
움길의 설계자로, 학생은 탐험자로 거
듭나다!’ ▲서울공덕초의 ‘한 뼘 더 깊
어진 우리 교실의 1년, 수업에 깊이가
생기다’ 등 연구학교의 실제 수업 장
면, 학생 작품, 수업 설계 과정이 전시
된다. 교사들은 수업 실천 경험을 공유
하며 학생의 질문에서 출발해 탐구로
확장되는 배움의 여정을 생생히 들려
줄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베테랑 투수 송은범, 삼성서 방출…강한울도
‘재계약 불가’ /사진 뉴스시
▲MLB 다저스 베츠,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
…팀 역대 4번째

▲홍명보호 11월 A매치 볼리비아전 대전·가나전
서울 개최
▲양현준 소속팀 스코틀랜드 셀틱, 로저스 감독과
결별

▲컵대회 파행 논란…배구연맹, 사무총장 감봉 3
개월 징계
▲마다솜, KPGA 에스오일 챔피언십서 시즌 첫
승·타이를 방어 도전